

## [영국] 식료품 시장 규모 상승

영국의 대표적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IGD 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식료품 시장이 디스카운터,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기관은 영국의 식품 및 식료품 시장이 2016 년까지 184 십억 파운드, 한화 332 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1 년에는 156.8 십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5 년간 17.3%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영국 식료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요인으로서는 독일계 Lidl 과 Aldi 와 같은 디스카운터,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 판매의 성장을 꼽았다.

2011 년 디스카운터 소매업체들의 매출액은 7 십억 파운드 (한화 12 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향후 연평균 10.1%씩 성장하며 처음으로 2016 년에는 매출액이 10 십억 파운드를 돌파, 11.4 십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편의점 섹터는 2016 년까지 4.7%가 성장, 2011 년 33.6 십억 파운드에서 2016 년에는 42.4 십억 파운드의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GD 는 온라인이 연평균 성장률 13.7%로, 가장 빠른 신장세를 기록하는 유통채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은 매출액이 2011 년 5.9 십억 파운드에서 2016 년에는 11.2 십억 파운드로, 향후 5 년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IGD 은 현재 영국의 비이상적인 경제적인 분위기와 유로존 위기가 야기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12 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60 주년 (the Queen's Jubilee celebrations), 유로 2012 축구 챔피언십, 그리고 런던 올림픽과 같은 초대형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식료품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1 년에 있었던 왕실의 결혼식 당시 소비자들이 영국 국내산 또는 영국 테마의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던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영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식료품을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에서 구매하고 있지만 종종 온라인과 편의점과 같은 다른 유형의 점포들도 이용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 주요 대형 업체들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점포를 오픈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디스카운터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스카운터들은 식료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경제적인 불황에서 가장 많이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품 및 식료품 섹터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도 이 섹터의 성장을 주도할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온라인으로 인근 매장에서 진행 중인 마케팅 및 서비스, 특별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